

#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

2024. 8. 27.

정종우(한국은행), 이동원(한국은행), 김혜진(국립부경대)

# 명문대 입시경쟁은 여전히 치열

100만원 '입시 컨설팅'에 이색학원까지...사교육비 '폭탄'

'○○○○' 등 유명학원 몰린 ○○역 일대  
지방 학생, 학원 강사 등 월셋집으로 몰려

"月 300만원짜리 방도 없어서 못 구해요"...학생들 '한숨' [○○○동 이야기 ⑰]

※ 대한민국 교육 1번지 ○○○동 교육의 일단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지난 4월15일



치열한 경쟁 적응 못해

'번아웃(탈진)' 겪는 학생들

# Preview

## ① 입시경쟁 과열 ⇨ 심각한 사회문제 유발

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

② 대학 내 다양성 부족

③ 수도권 인구집중 및 저출산

④ 청소년·대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성과 저하

# Preview

② 「지역별 비례선발제」: 입시경쟁의 “나쁜균형”(악순환)을 깨는 과감한 접근

① 상위권대가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

② 입학정원의 대부분에 대해 적용

③ 선발기준 및 전형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선택

## ○ 기대효과

① “Lost-Einsteins”(잃어버린 인재) 현상 완화

② 대학 내 다양성 확대

③ 수도권 인구집중, 저출산 등 사회문제 완화

# 목 차

1. 대학입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
2. 지역별 비례선발제
3.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기대효과

# 1. 대학입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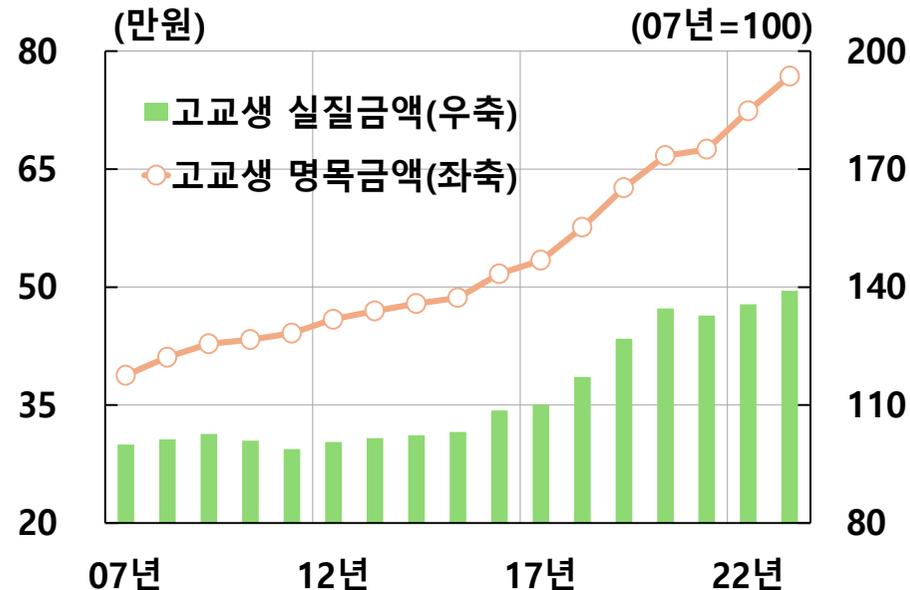
# 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

## □ 사교육비 부담 증가

○ 07~23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, 연간 4.4% 증가(실질 +2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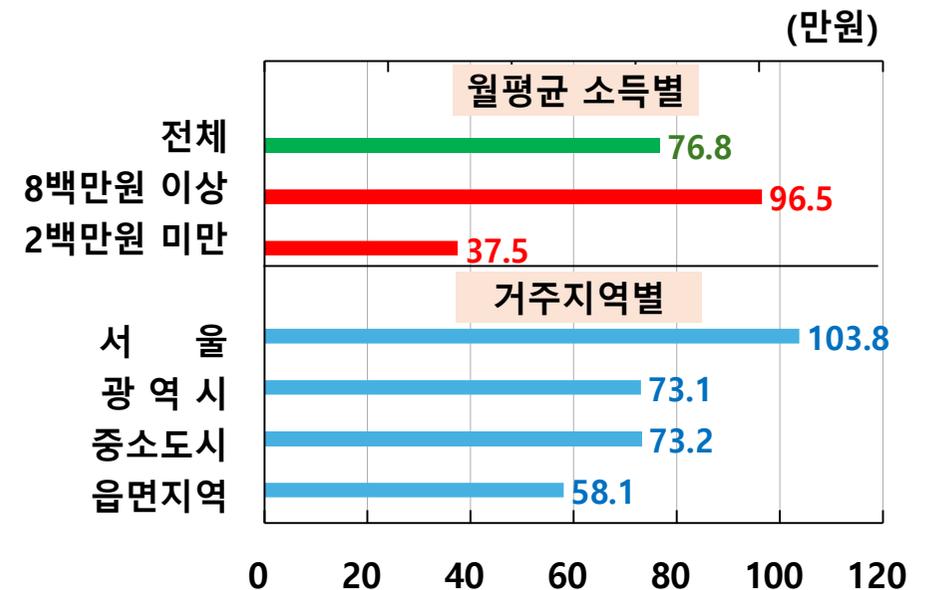
⇒ 소득수준별·거주지역별 사교육비 격차

사교육 참여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



주: 1) 진학목적고(일반고 등) 기준

2023년 소득수준별·거주지역별 사교육 참여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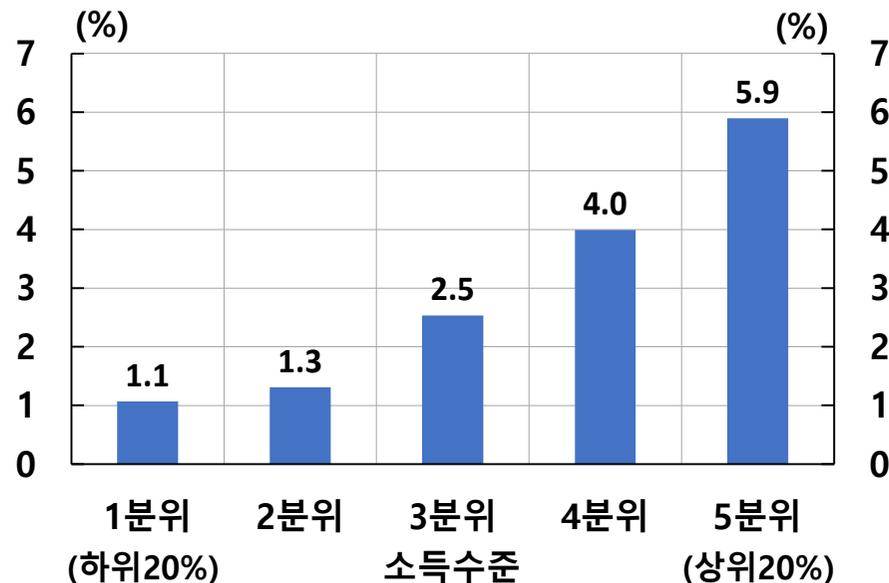


주: 1) 진학목적고(일반고 등) 기준

# 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

- **소득수준별** 사교육비 격차 ⇨ **소득수준별**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
  - ‘소득 상위 20%’가 ‘하위 20%’의 5.4배
  - “능력 있는 나를 닮아 우리 애가 똑똑해” ⇒ 학생 잠재력의 영향
- ⇨ 25%만 학생 잠재력, **75%는 「부모 경제력 효과」**(정종우 외 2024 참조)

2010년 고3 학생의 소득수준별 상위권대 진학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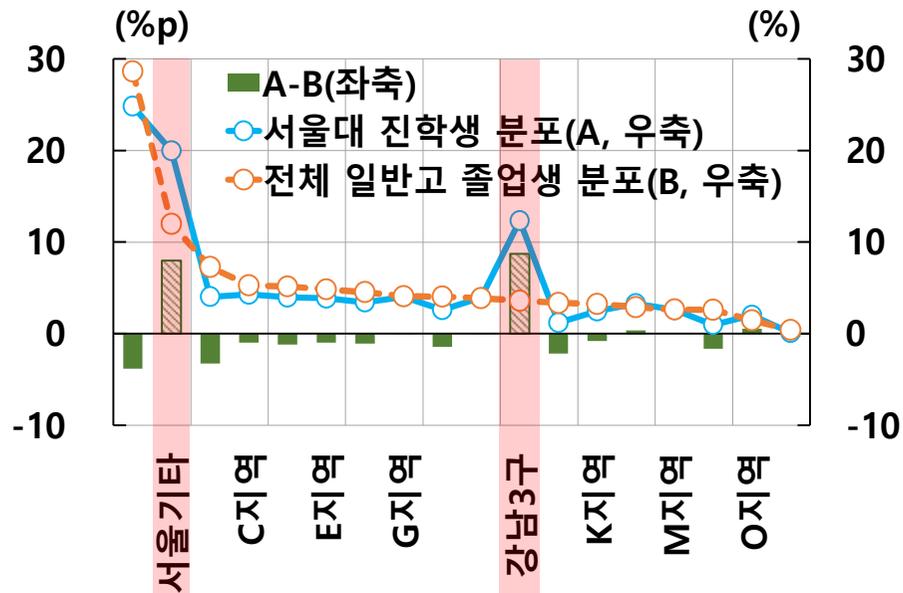


# 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

□ **거주지역별** 사교육비 격차 ⇨ **거주지역별**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

- (서울 출신) 일반고 졸업생 중 16% vs 서울대 진학생 중 33%
- (강남3구 출신)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4% vs 서울대 진학생 중 1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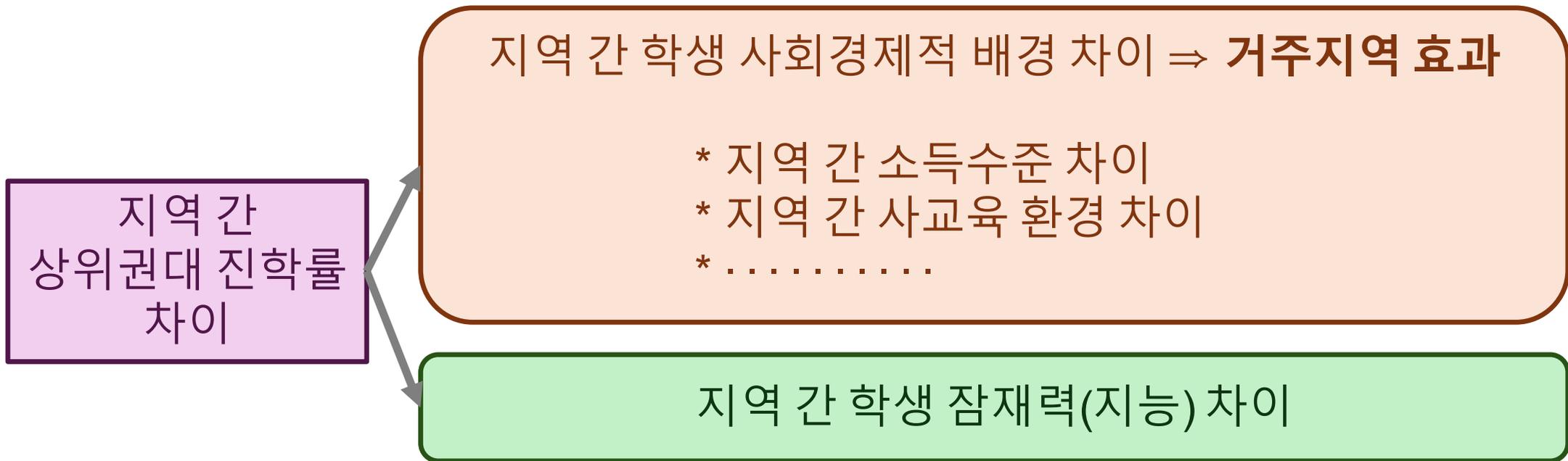
2018년 일반고 졸업생 중 서울대 진학생의 지역별 분포



주: 1) 강남 3구는 강남구·서초구·송파구를, 서울 기타는 그외 서울 자치구를 의미

# 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

## □ 학생 잠재력 영향 vs 「거주지역 효과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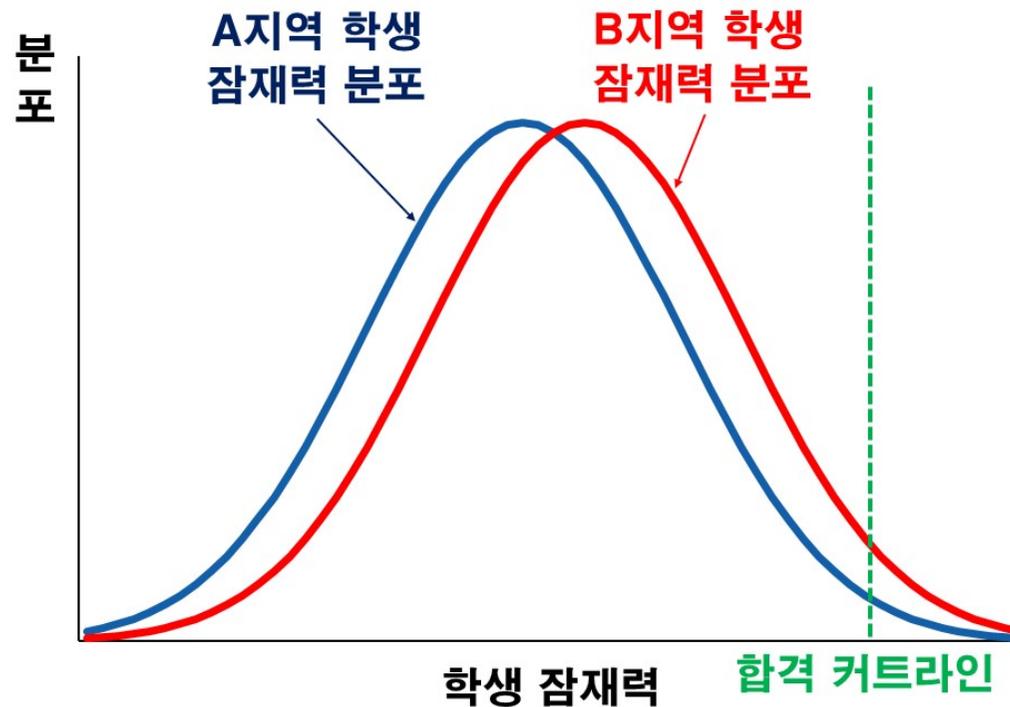
# 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

□ 지역별 학생의 잠재력 측정 : 김세직 외(2015)

○ 지역별 학생의 지능 분포 추정

○ 지능 = 잠재력

⇒ 지역별 잠재력 기준 서울대 진학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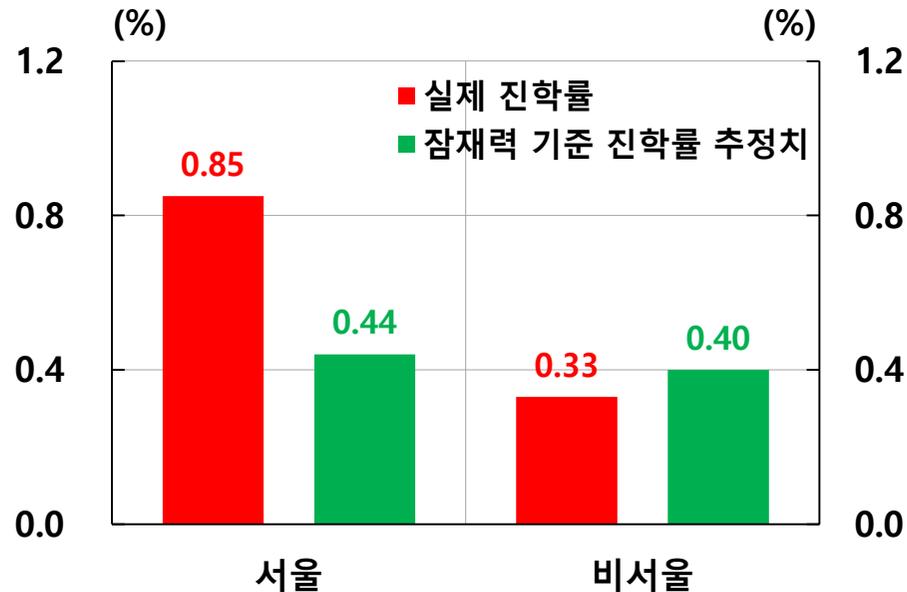


# 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

## □ 서울 vs 비서울

⇒ 서울-비서울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**92%**가 「거주지역 효과」

2018년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률:  
실제 진학률과 학생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 비교





# 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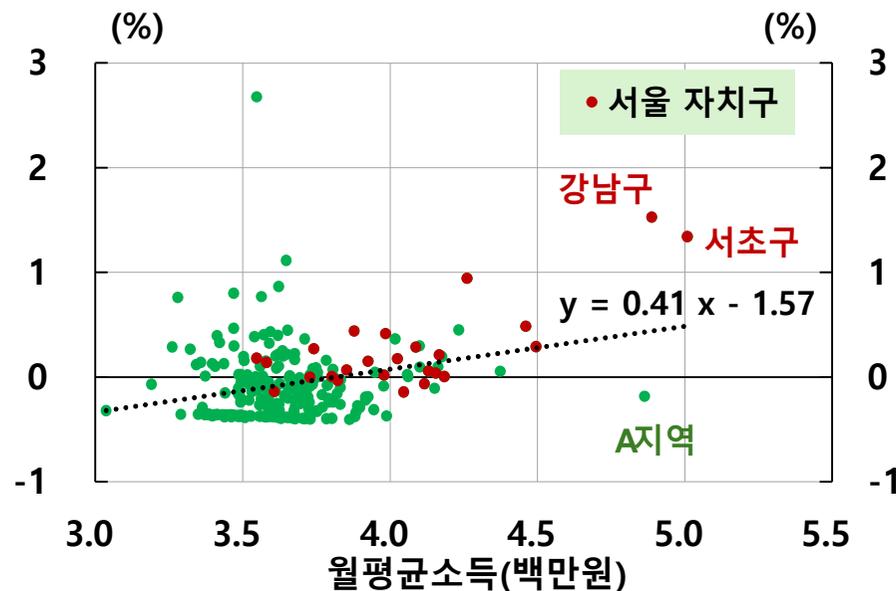
□ 「거주지역 효과」 = 소득수준 + 사교육 환경 + ……

○ 소득수준 ↑ ⇨ 초과 진학률 ↑

○ 사교육 환경 ↑ ⇨ 초과 진학률 ↑

※ 「거주지역 효과」 ⇨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 ⇨ 사회역동성 저하

2018년 전국 시군구별 소득수준과 잠재력 초과 서울대 진학률<sup>1)</sup> 간의 관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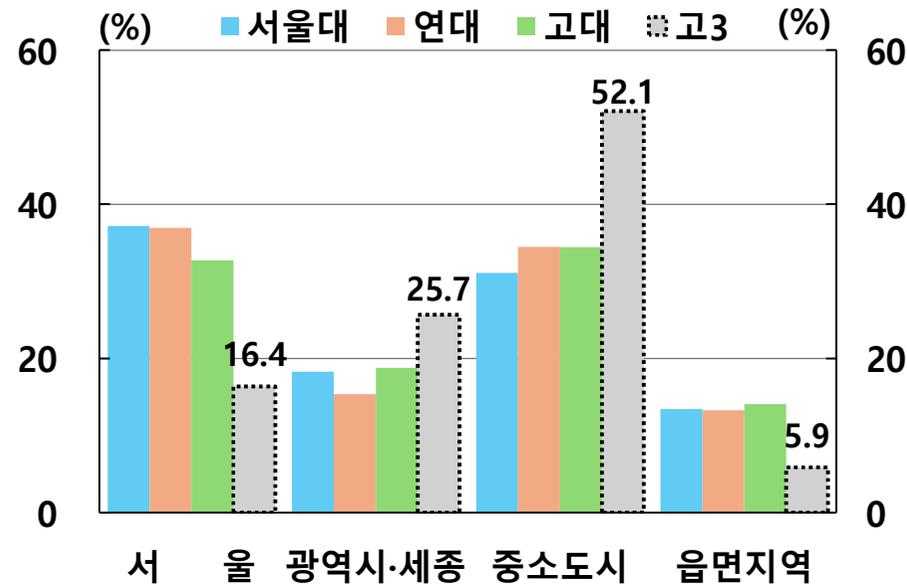
## ②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 부족

□ 상위권대 신입생의 서울 출신 쏠림

⇒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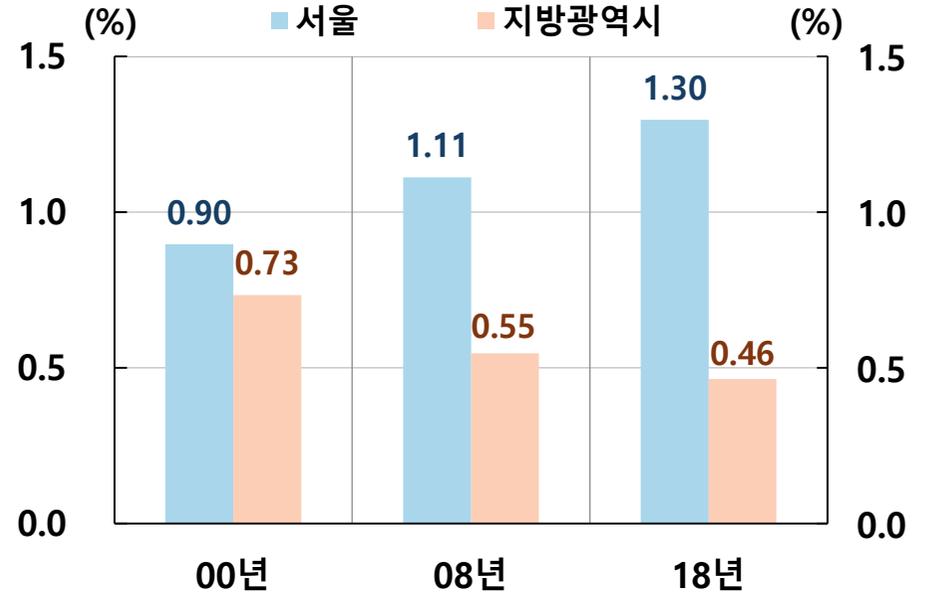
□ 상위권대의 지역적 다양성 부족이 더 심화

2024년 주요 상위권대 신입생의 지역별 분포



주: 1) 검정고시 및 해외고 등은 제외, 2) 당해연도 3월 학기 신입생 기준, 고3은 23년 기준

지역별 고3 학생 중 서울대 진학생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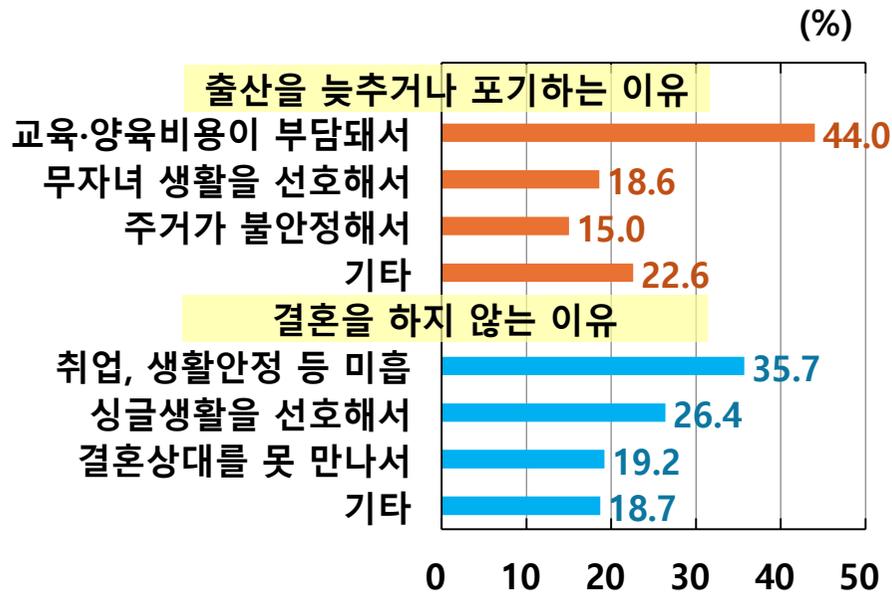
주: 1) 고3 학생수는 전년도 수치를 사용

### ③ 저출산 · 만혼 및 수도권 인구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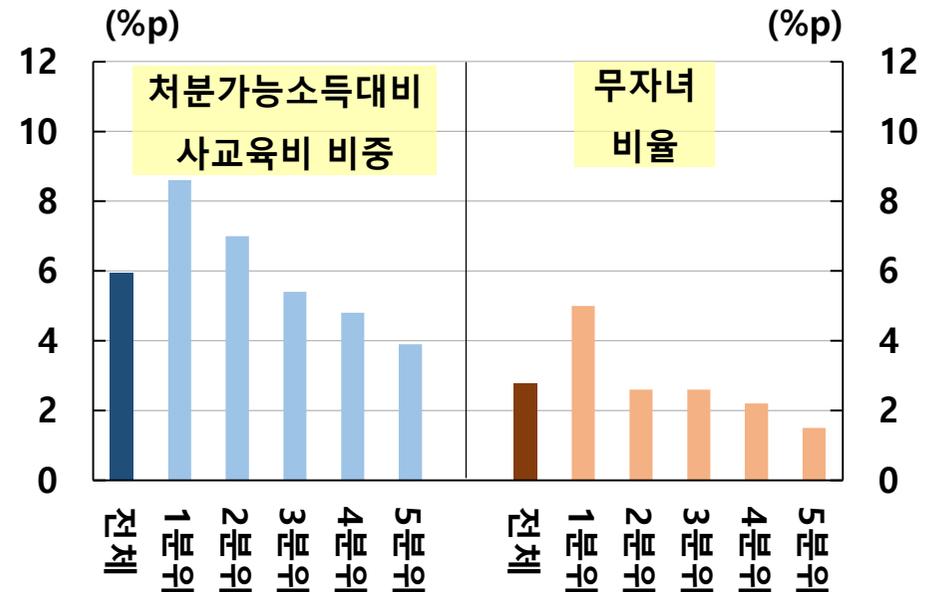
□ 사교육비 등 부담 ⇨ 저출산 및 만혼

□ 교육열 ⇨ 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중 +6%p, 무자녀 비율 +3%p  
(Kim et al. 2023)

저출산 및 만혼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



교육열로 인한 사교육비·저출산 추가 증가폭



주: 1) 1분위는 최저소득계층, 5분위는 최고소득계층을 의미

# ③ 저출산 · 만혼 및 수도권 인구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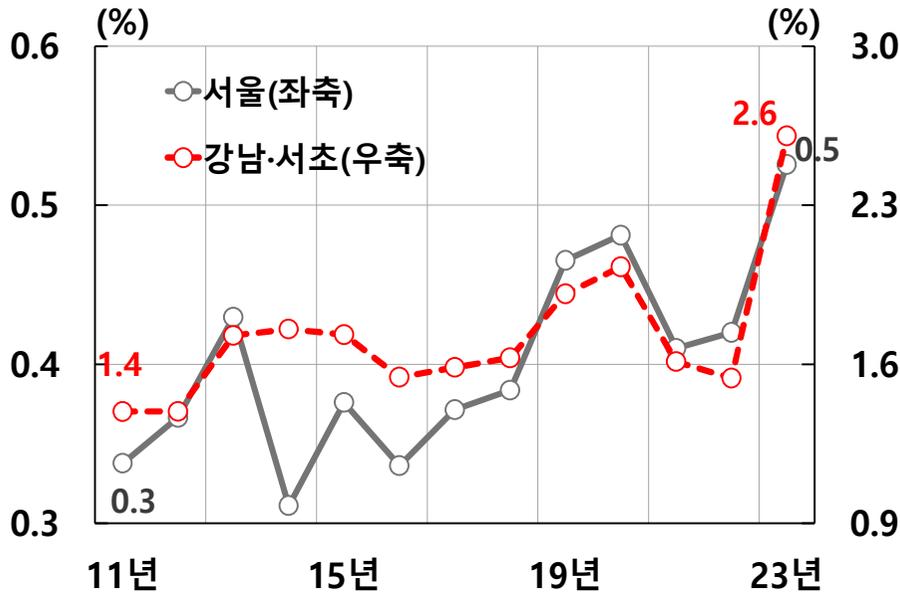
## □ 교육을 위한 서울 이주 수요 증가

■ (23년 학급당 초중생수) 강남·서초 25.6명(전국 평균 대비 +4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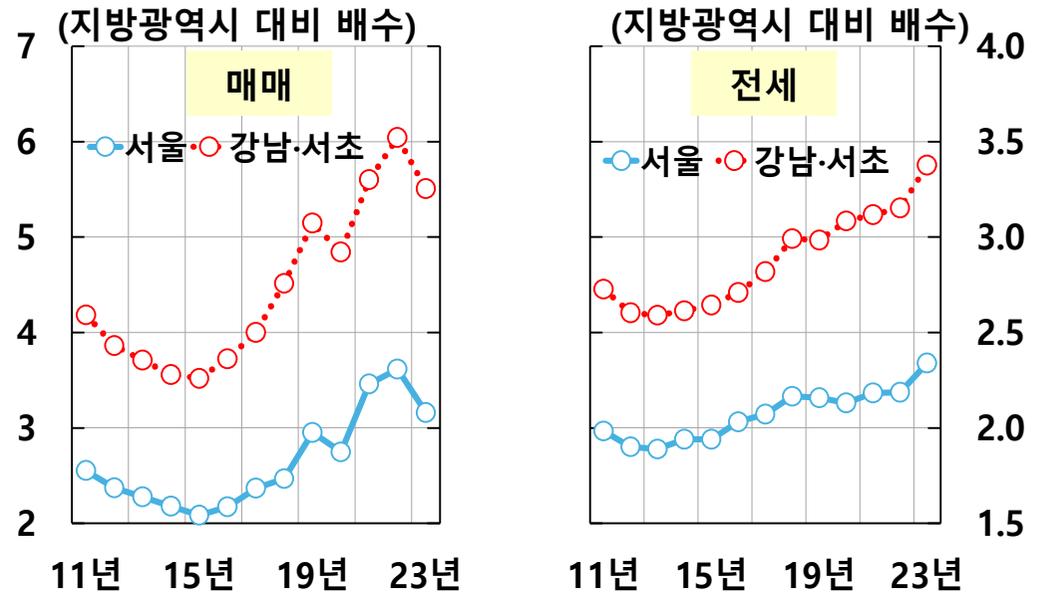
⇒ 수도권 인구집중, 서울-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

⇒ 저출산, 만혼

초중생<sup>1)</sup>의 교육목적 서울 전입률<sup>2)3)</sup>



서울의 아파트 상대가격<sup>1)</sup>



주: 1) 만 7~15세, 2) 교육을 전입사유로 응답한 초중생 전입자수 ÷ 전입지 초중생 인구수  
3) 강남·서초는 다른 시군구로부터의 전입도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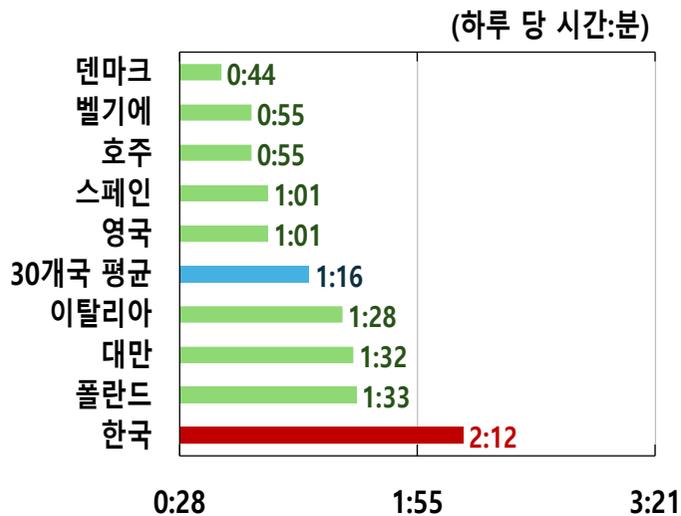
주: 1) 지방광역시(5개)대비 서울의 면적(m<sup>2</sup>)당 아파트 실거래가 배수를 의미

# ④ 청소년 · 대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성과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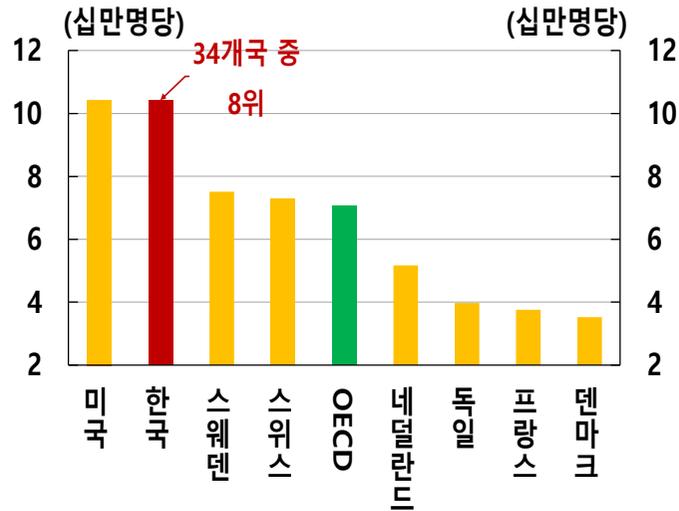
## □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

-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⇨ 행복도 및 정서안정 저하
- 입시 위주 교육 ⇨ 협동심 및 창의성이 성장 못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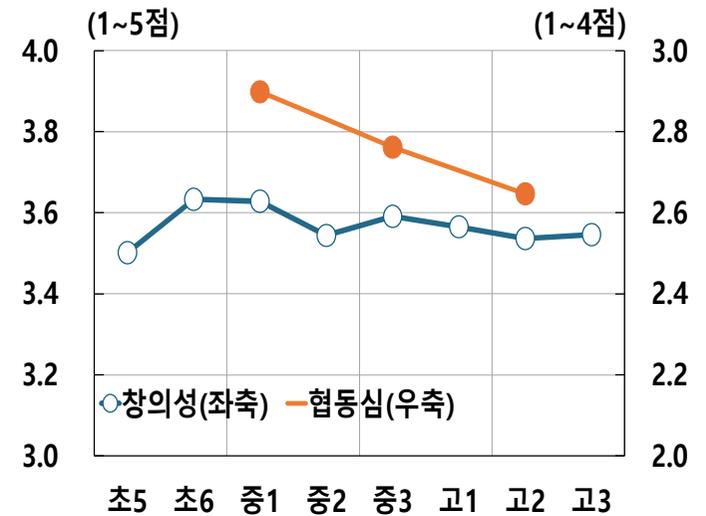
청소년<sup>1)</sup>의  
방과 후 학습시간(18년)



만 15~19세 자살률(20년)



2020년 고3 학생의  
학년별 창의성·협동심



주: 1) 만 15세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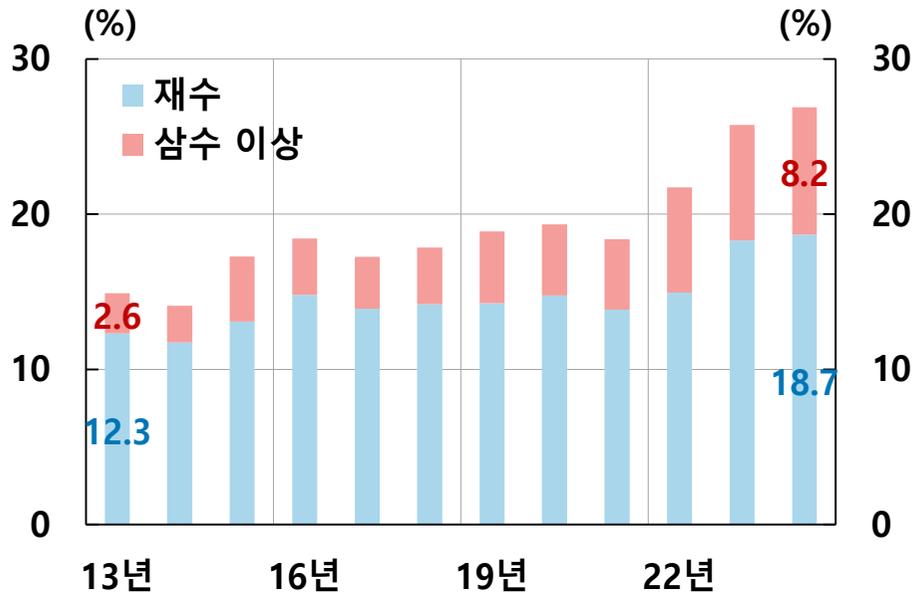
# ④ 청소년 · 대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성과 저하

## □ 대학생에 대한 부정적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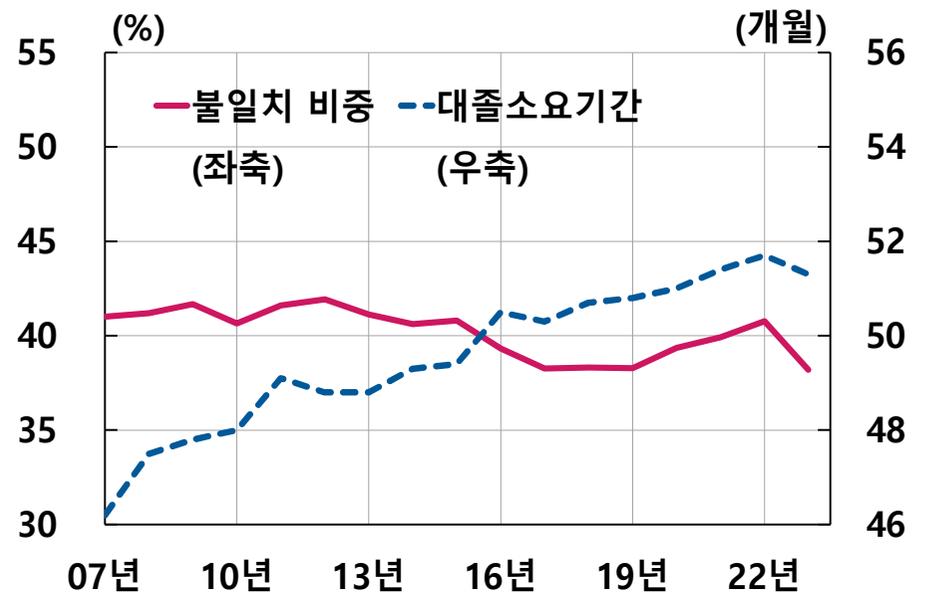
○ 재수생 증가, 번아웃 유발, 직업·전공 불일치

⇒ 노동시장 성과 저하

서울대 재수생 비중



대졸자의 직업·전공 불일치 비중



주: 1) 만 15세 기준

## 2. 지역별 비례선발제

# 지역별 비례선발제

## □ 지역별 비례선발제

① 상위권대가 **지역별 학령인구 비율**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

② **입학정원의 대부분**에 대해 적용

③ **선발기준 및 전형방법** 등은 자율적으로 선택

○ (정부) 필요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, 전형계획 준수여부 점검

⇒ 입시경쟁의 악순환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하고, 다른 정책 추진에도 탄력

※ 정운찬(2002)의 「**지역 할당제**」,  
김세직(2016, 2024)의 「**비례경쟁 선발 입시제도**」

#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시 고려사항

## 도입대학

- ▶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대

## 거주요건

- ▶ 너무 짧으면 악용사례 발생
- ▶ 너무 길면 거주이동자유를 과도히 제한

## 지역별 선발비율

- ▶ (방안 ①)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과 일치
- ▶ (방안 ②) **지역별 선발인원에 상하한 설정**

## 모집단위

- ▶ 무전공 등 **모집단위 광역화**가 병행되면 도움

## 기 타

- ▶ **충분한 유예기간**

# 3.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기대효과

# ① Lost-Einsteins 현상 완화

## □ “하한 0.7배수, 상한 1.3배수”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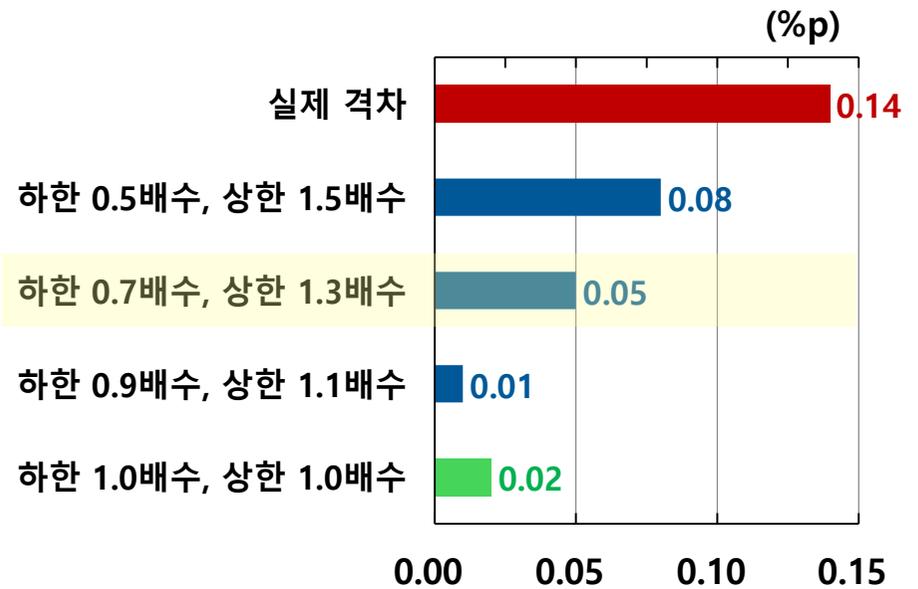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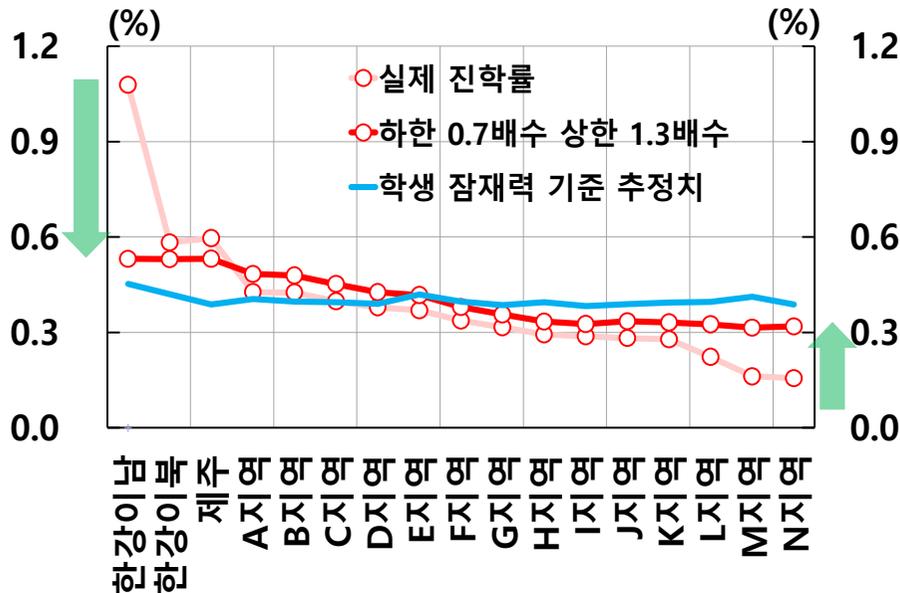
\* (합격자 중 특정지역 비율) 고3학생 중 해당지역 비중 × 0.7배 & 1.3배 범위 내

⇒ 학생 잠재력과의 괴리가 64% 감소(+0.14%p → +0.05%p)

지역별 선발인원 상하한 적용방식에 따른 2018년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 추정

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의 변화

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 격차의 평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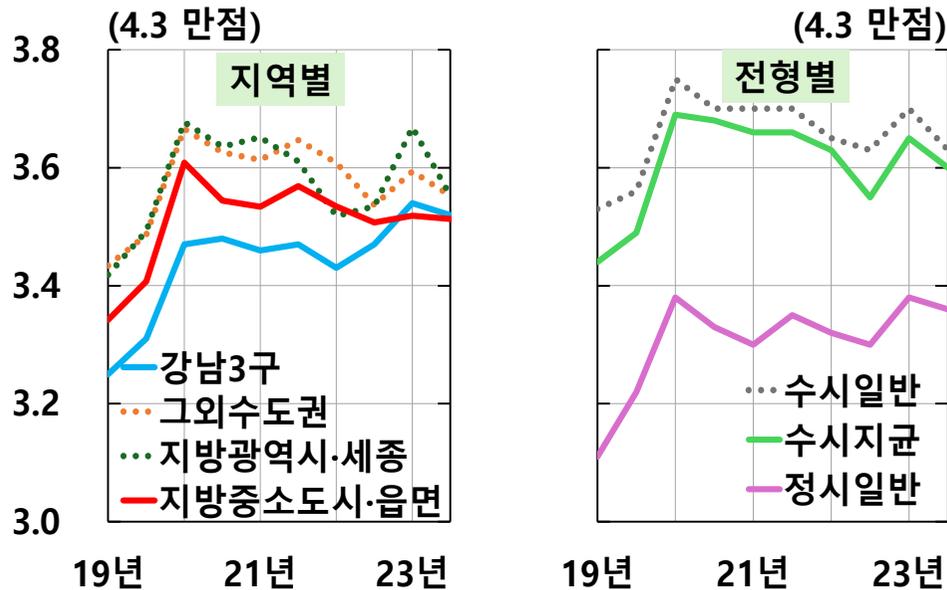
주: 1) 아래와 같이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 격차의 절대값을 지역별로 가중 평균함. i는 시도를 의미  
 $\sum_i | \text{서울대 진학률}_i - \text{잠재력 기준 추정치}_i | \times \text{인구비중}_i$

# ① Lost-Einsteins 현상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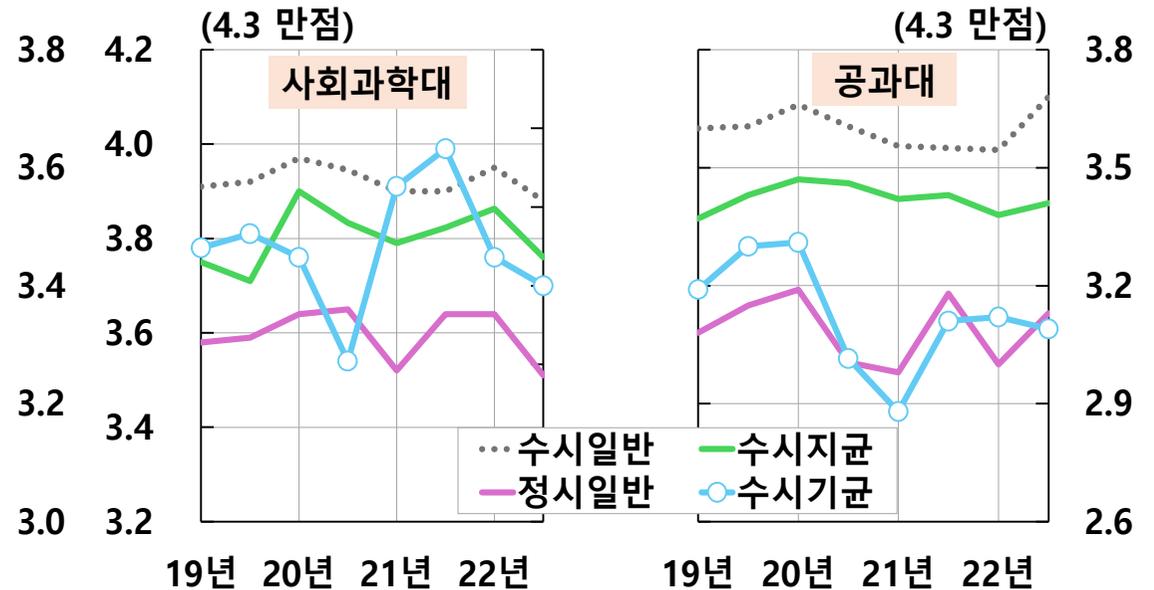
□ 서울대 「지역균형전형」 지방입학생의 성적이 대등

□ 서울대 「기회균형특별전형」 입학생(농어촌학생 등)의 성적도 대등

서울대 지역별·전형별 학기성적 변화(19학번)



서울대 사회과학대 및 공과대의 전형별 학기성적 변화(19학번)



## ②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 확대

□ 인종, 민족, 문화 등 대학 내 다양성을 통한 교육적 이점

### ▶ 개 인

- 창의력, 문제해결능력
- 대인관계기술
-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방성

### ▶ 사 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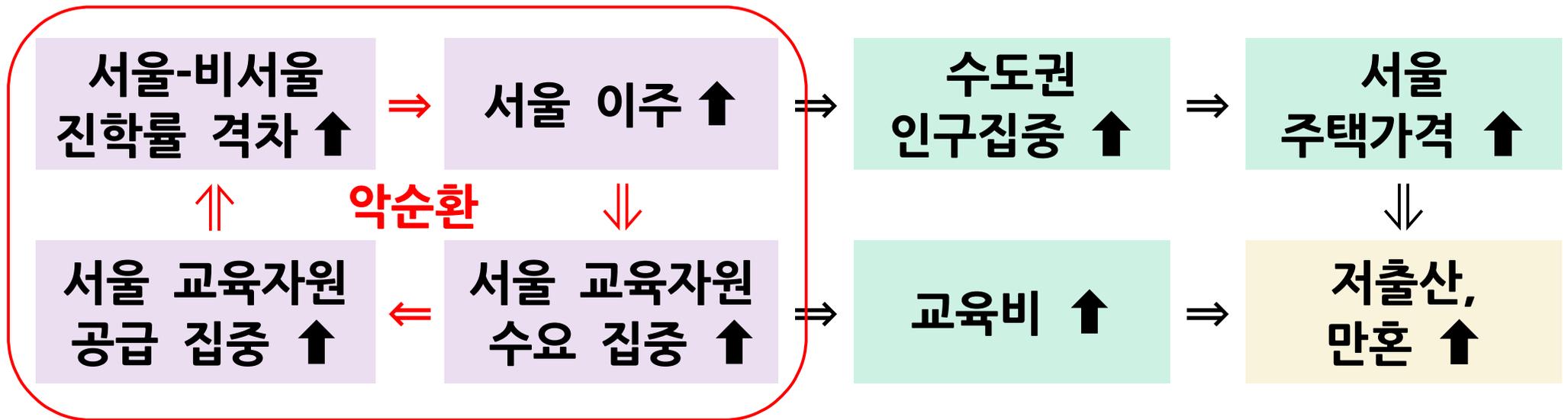
- 사회적 편견 감소
- 사회통합능력을 갖춘 지도자 육성
- 소외계층 고등교육기회 확대

⇒ (우리나라) 출신지역이 좋은 다양성 확대 수단

※ (서울대) 2016년부터 다양성위원회 운영

### ③ 입시관련 사회문제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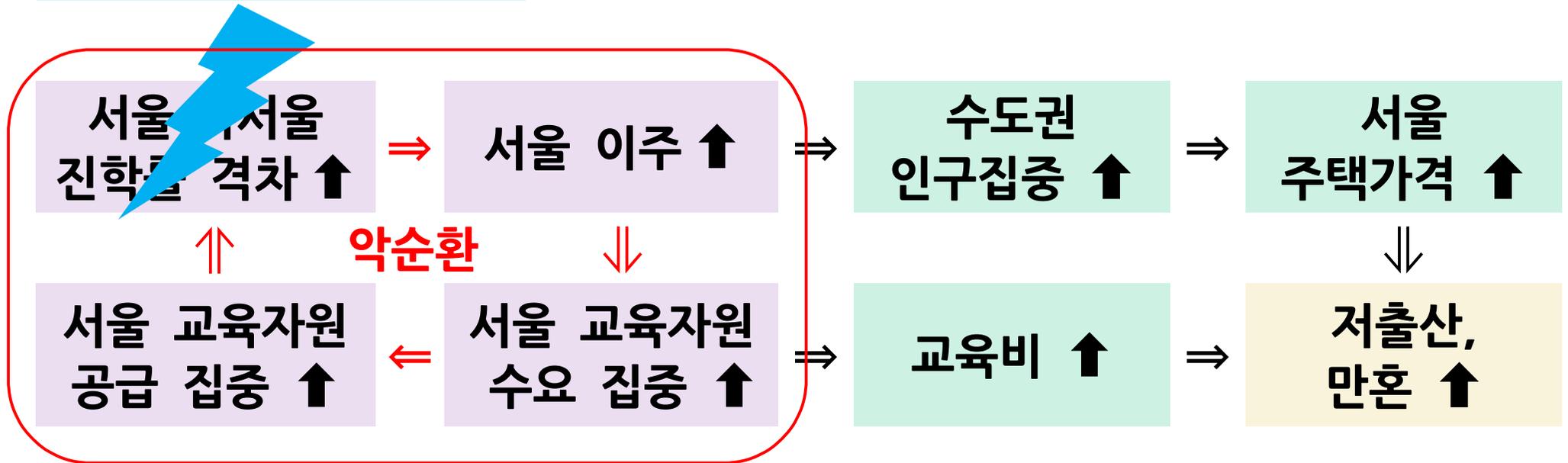
□ 서울-비서울 상위권대 진학을 격차로 인한 “나쁜 균형(악순환)”에서 탈피



### ③ 입시관련 사회문제 완화

□ 서울-비서울 상위권대 진학을 격차로 인한 “나쁜 균형(악순환)”에서 탈피

#### 지역별 비례선발제



□ 입시경쟁의 지역적 분산 + 대학의 다양한 선발기준 + 모집단위 광역화

⇒ 학생이 느끼는 경쟁압력 ↓ + 교육성과 ↑

# 맺음말

- 명문대를 향한 입시경쟁 과열 ⇨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
- 「지역별 비례선발제」: 입시경쟁의 “나쁜균형”(악순환)을 깨는 과감한 접근
  - ① “Lost-Einsteins”(잃어버린 인재) 현상 완화
  - ② 대학 내 다양성 확대
  - ③ 수도권 인구집중, 저출산 등 사회문제 완화
-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없어도 빠르게 입시관련 사회문제를 줄이는 단초

**“Talent is Everywhere”**

# 참 고

# 지역별 학생의 잠재력 측정(김세직 외 2015)

□ 지역별 **부모의 소득분포** × 소득과 지능 간 상관계수  
= 지역별 **부모의 지능분포**

□ 지역별 **부모의 지능분포** × 부모 지능과 자녀 지능 간 상관계수  
= 지역별 **자녀의 지능분포**

□ 지능 = 잠재력 ⇨ **지역별 잠재력 기준 서울대 진학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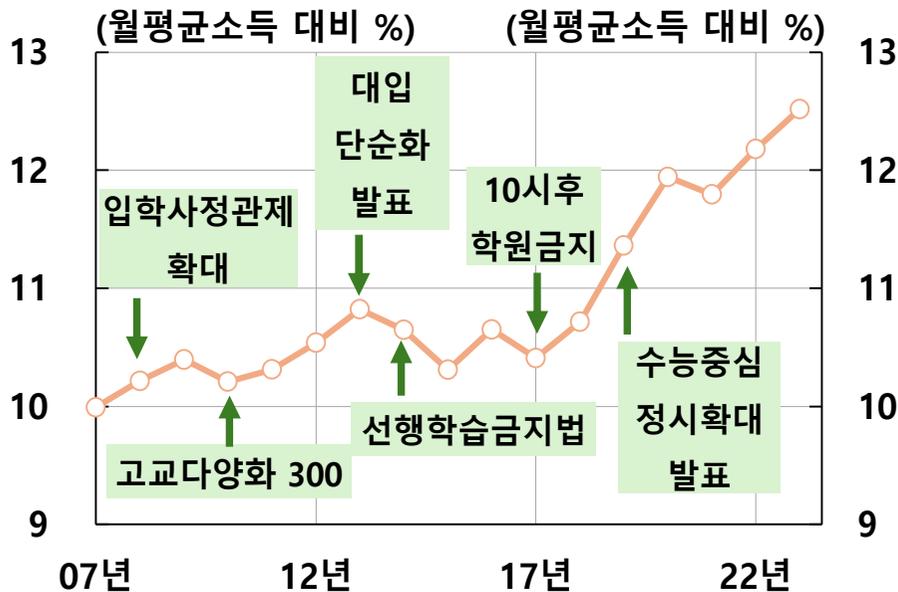
#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 한계

□ 그동안 대학입시제도는 수시로 개편

○ 광복 이후 2022년까지 큰 폭 개편만 총 24회(서남수·배상훈 20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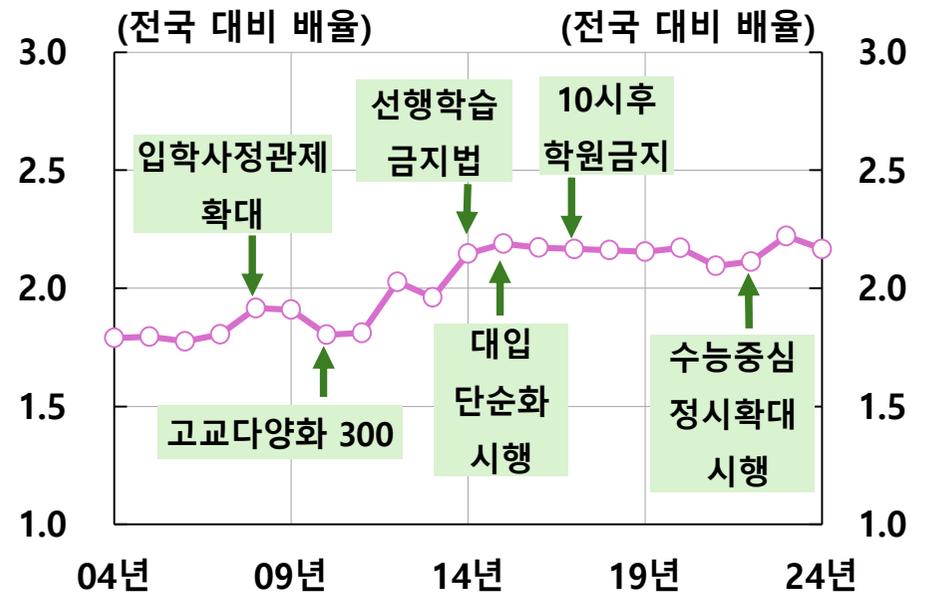
□ 대입제도가 여러 차례 개편되었지만 입시관련 사회문제가 지속

월평균 소득 대비 1인당 사교육비 비중



주: 1) 사교육 참여 진학목적고(일반고 등) 재학생 기준

서울 출신의 서울대 입학률



주: 1) 입학정원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의 입학률 대비 배율로 표시

# 미국 대학의 지역적 다양성 확대 노력

- 다양성 목표, 입시평가항목 등에 포함
- 지역적 다양성 홍보, 입학설명회, 소외고교 자매결연 등
- (텍사스 주) 「내신 상위 10% 자동입학제」(Top 10% Plan)

2022년 주요 미국 대학의 출신지역별 신입생 분포

명문대

사관학교

California Texas Florida New York Pennsylvania Illinois Georgia Ohio North Carolina Michigan Others

